

< 사례 보고서 >

# Continuing Hegemony of Realism

-미국-인도 핵 협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



교과명	국제정치이론
담당교수	신옥희
제출일자	2006. 6. 5
학과	외교학과
학번	2002-10201
이름	유 승 민

# <목 차>

서론.....1

본론.....2

1. 사례개관-미국과 인도의 이해(interest).....2

2. 분석틀-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핵심적 주장.....3

3.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논쟁.....4

4. 구성주의적 대안과 한계.....7

결론.....9

참고문헌.....9

## I. 서론

지난 3월 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핵 협력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미국은 사실상 인도에게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인도에 핵 기술과 물질 등을 판매하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하여 전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서로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한 셈이 되었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통제하고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을 펼쳐온 모습과 상반된다. 미국은 전후 질서를 바로 잡고 냉전기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NPT와 같은 제도적 노력과 IAEA와 같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핵 확산을 통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sup>1)</sup> 특히 인도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6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도의 핵 능력 제고의 노력이 남아시아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따라 각종 경제 제재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려고 애써왔다. 이와 같은 전례를 볼 때 미국 - 인도 핵 협력 협정은 왜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미국이 인도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영원한 제국은 없었다는 역사적 진리에 도전하는 미국의 노력에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나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이다. 미국이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고 끌어안은 결정적 이유는 인도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balancing)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이 주는 국제정치이론적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이론 군들 중 여전히 현실주의적 시각이 우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제도가 큰 제약을 주지 못했다는 점, 국제 정치에서 여전히 핵이라는 군사적 수단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력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더 나아가 이 사례를 통해 구성주의적 관점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과 인도가 핵 협정을 맺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살펴본 후 이 사례 분석에 적용시킬 국제정치이론의 핵심 주장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다음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대안으로서의 구성주의가 주는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도 논해보겠다. 끝으로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문제가 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향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도 시도해보겠다.

## II. 본론

1) 권정수, “탈냉전기 핵 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인도 · 파키스탄과 이라크 · 북한의 핵 개발과 통제 사례 비교” (서울 : 국방대학원, 2000), pp. 68~79.

2) 주간한국 2006년 3월 21일 2114호, pp. 24~25, 주간조선 2006년 3월 6일, pp. 46~49.

## 1. 사례 개관 - 미국과 인도의 이해

인도는 일찍이 독립 전후시기부터 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개발해왔다. 인도 핵 개발의 대부로 알려진 바바(Homi J. Bhaba) 박사를 뿌리로 하여 44년 기초 연구소를 설립하고 5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연구용 원자로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체적 노력에 캐나다와 영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더해 60년에는 10만 킬로와트급의 원자로를 건설해 냈다. 이 후 74년에 포크란 사막에서 처음으로 핵실험을 하여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고 98년에는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여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 내보였다.

인도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추구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sup>3)</sup> 가장 큰 원인은 접경 국가인 중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인도는 중국과 62년 국경분쟁을 통해 14,000m<sup>2</sup>에 달하는 영토를 상실했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현실적 결과를 통감했다. 또한, 인도와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는 파키스탄과도 47, 65, 71년에 걸쳐 세 차례나 전쟁을 치루는 등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가 74년과 98년에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64년과 96년에 각각 있었던 중국의 핵실험이라는 점에서 인도의 핵개발은 주변국과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는 냉전기 중 비동맹 세력의 영주라는 자신의 지위와 남아시아에서의 패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하고 더 나아가 지구적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얻기 위해 핵 능력을 추구해 왔다. 또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정 상 꼭 필요한 에너지 재원으로서도 핵은 인도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국내 정치적 요구와 힌두 민족주의적 발흥도 인도가 지속적인 핵개발을 해온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특히 냉전기 인도는 비동맹 세력임에도 소련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핵확산의 반대편 세력을 이끌며 인도에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핵 확산 방지 조약(NPT)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한편 단독적으로 인도에 대하여 핵 물질 수출 통제를 하며 핵 협력을 중단하였다. 74년 인도의 핵 실험 이후에는 런던 핵 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y Group)을 결성하고 핵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97년에는 남아시아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외관계 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를 설치하는 등 각종 경제적 제재와 함께 인도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98년 인도가 핵 실험을 한 후 미국은 서서히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기 시작했고 결국 핵 협력 협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98년 인도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행하자 152개국 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국가들이 즉각적인 경제제재를 단행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미국도 핵실험 직후에는 각종 국내법과 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도 차단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핵실험이 말해주듯 이미 이때쯤 인도는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핵 능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

3) Deepa M. Ollapally, "Mixed Motives in India's Search For Nuclear Status", *Asian Survey*, Vol. 41, No. 6(Nov., 2001) pp. 925-942.

되었다. 세계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남아시아 경제시장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인도의 핵 보유문제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sup>4)</sup> 더욱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국으로 인도만큼 적합한 국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도측도 NPT와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비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이때부터 양국 간에는 점진적인 협력의 양상이 진행되어왔다. 최근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진행 중인 FTA 체결을 위한 연구와 작년에 있었던 러-중-인 군사 합동훈련 등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제국적 질서를 펼쳐나가려는 미국의 전략에 큰 위협이 되었고 급기야 미국은 인도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으로까지 치달게 된 것이다.

## 2. 분석틀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핵심적 주장

사건에 대한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 그 속에서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론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미국과 인도의 핵 협정이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또한 앞으로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이론은 필수적인 도구이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창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이 있다. 각각 인간과 세계를 대한 상이한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진단을 내리는 이론들이다. 각 이론들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적실성과 설명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 미국-인도의 핵 협정은 여러 측면에서 현실주의 이론의 적실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각 이론 군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근대국제 정치가 시작된 이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현실주의 이론이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들은 국제관계의 주체는 국가이고 이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무정부적 특성을 지니며 이들은 권력추구라는 행위를 한다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국제관계를 설명해 내고 있다. 투키디데스부터 마키아벨리를 거쳐 한스모겐소, 케네스 월츠 등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적 현실을 권력에 대한 경쟁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 국가들은 세력 균형과 같은 안정을 모색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이론적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가정들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대표적인 경쟁이론인 자유주의 이론의 순진함을 지적한다.

국제정치의 장을 투쟁의 장으로 보는 현실주의 이론에 맞서 현실 국제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자유주의 이론이다. 현실주의 이론과는 달리 자유주의 이론은 경제적 자유주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이상주의적 자유주의, 제도적 자유주의 등 상당히 상이한 주장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목표와 이를 가능케 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현실주의 이론의 아성

---

4) 권정수, -, pp. 68~69.

에 대한 역사적 도전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지만<sup>5)</sup> 여전히 국제관계 상 벌어지는 협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 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주류 이론이라고 불리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이 강대국 중심의 현상 유지적 이론으로 국제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안적 이론 군들이 80, 90년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은 구성주의 이론이다. 합리주의 이론군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국제 정치에서 행위자와 행위자의 이득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분과 대비되는 관념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 간주관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의 논쟁

미국-인도 핵 협정은 20세기 초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논쟁을 시작으로 신-신 논쟁(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간 논쟁, 혹은 통합)으로까지 계속되는 두 이론 간의 대립 가운데 현실주의 이론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사례이다.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신논쟁은 두 이론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과 닮았다는 지적이 있지만<sup>6)</sup>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두 이론 간에는 깊은 골이 존재하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양자택일의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두 이론이 대립하는 지점 중 특히 이번 사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국제정치에서 제도가 갖는 의미, 핵무기로 대변되는 군사적 수단의 위상(leverage), 세력균형 원리(BOP)가 갖는 의미이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현실주의 이론의 적실성을 고찰해 보겠다.

#### 1) 제도(institution)의 한계

제도는 일관성이 있는 일련의 규칙이나 관행으로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설정해 주고 행위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행위자가 이 안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sup>7)</sup> 대표적인 자유제도주의자인 Robert O. Keohane은 그의 저서 「After Hegemony」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패권 안정론을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 패권 아래 창출된 제도는 패권이 쇠퇴한 이후에도 독자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국제관계에 지속적인 안정을 창출해 낸다고 설명한다. 제도는 국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의 비용을 감소시키며 국가 간에 이념적 공감대 형성을 가능케 한다. 즉, 국가들의 힘의 분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인 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국가들은 제도를 통해 무정부적인 상황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제도란 힘의 분포를 반영하는

5) 2차 세계대전의 발발, 냉전의 시작, 9.11 테러 사건 등은 각 사건의 이전의 국제관계를 지배하던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일거에 깨뜨리기에 충분한 뼈아픈 기억들이다.

6) Steven L. Lamy, "현대 주류 이론: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J. Baylis and Steve Smith, eds.,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3rd ed., 을유 문화사, 2005, p. 224.

7) 『세계정치론』, p. 223.

결과물로서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고 권력정치를 행하는 강대국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공격적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John J. Mearsheimer는 제도주의자들이 주장을 반박하며 "제도는 국가 행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탈냉전 시기 세계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대를 걸 수 없다"고 하였다.<sup>8)</sup> 제도가 국가의 신뢰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한들 결국 최수의 딜레마의 상황과 같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씻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미국과 인도의 핵 협정은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인도에게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이와 관련된 핵물질과 기술을 공급해줄기로 했다. 대신 인도는 IAEA의 사찰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IAEA의 사찰 대상은 인도에 있는 총 22기의 원자로 중 14기만 해당되고 나머지 8기는 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sup>9)</sup>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1970에 발효되어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던 NPT의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NSG 규제와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의 지침<sup>10)</sup>, 그리고 핵확산 방지법(U.S. Nonproliferation Act) 등 많은 제도적 원칙에도 위배된다. 냉전 시기 핵확산 방지를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모두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스스로 이를 어기는 미국의 행동은 제도란 강대국의 전략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주의 이론의 적실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NPT와 같은 기존의 핵확산 방지 제도들은 강대국 중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제도란 국제정치상 권력 분포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NPT는 1967년 이전에 핵 실험을 실시한 국가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연장회의를 통해 NPT는 무조건, 무기한 연장되었다. 기존의 핵보유국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다른 국가의 핵보유를 통제하는 NPT는 그 자체로 국제정치의 권력정치적 속성을 반영한다. 또한 90년대 후반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이 미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도의 이러한 속성을 더욱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 2) 힘의 국제화폐 - 핵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정치에서 군사적 수단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핵무기의 분포와 이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논리로 인하여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확률은 매우 낮고 현재 진행되는 국제관계의 표면을 이루는 것은 핵무기와 동떨어진 경제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70

8)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 3(Winter 1994/95), p.7.

9) 뉴스위크 한국판 2006. 4. 19, p.20.

10) NPT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수출되는 물질은 비 폭발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년대 데탕트의 시대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자유주의 이론 진영에서는 복합적 상호의존론(Complex Interdependence)을 기반으로 이 주장을 좀더 구체화 하였다. Joseph S. Nye와 코헤인은 자신들의 글을 통해 복합적 상호의존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군사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현실주의자들은 핵무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물리적 힘에 대한 강조를 항상 잊지 않는다. 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체제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권력의 배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국가의 권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군사력이다.<sup>12)</sup> 왈츠는 핵무기의 경우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만한 단위차원의 변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하였다.<sup>13)</sup> 현실주의자들은 실제로 국제정치를 설명해 내면서도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Mearsheimer와 방어적 현실주의자에 속하는 S. Van Evera는 탈냉전기 유럽의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하면서도 독일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유럽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sup>14)</sup>

인도와 미국이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은 매개물이 핵이라는 사실 자체는 국제관계에서 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도의 정치인들은 핵을 힘의 국제화페라고 묘사하고 자국의 핵 보유 유무가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인도의 지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고 냉전기 겪었던 군사적 분쟁의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인도의 이러한 인식은 당연하다. 인도의 핵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산에 있어서도 핵무기의 중요성은 실재적인 것이다. 사용될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충분히 중국의 옆구리를 시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길핀이 패권 전쟁 이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핵무기의 존재가 전쟁의 가능성을 줄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주의가 가정하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핵무기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수단으로 언제나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계속되는 세력균형 원리

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하면 세력균형의 원리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국가들은 경제적 교류, 국제 제도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켜나갈 수 있고 그 결과가 꼭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균형적 상황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협력의 가능성과 그 협력이 자신에게 절대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면 국가들은 견제의 고삐를 늦추고 협조를 할 수 있다. 한번 시작된 협력의 모색은 복합적 상호의존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더 이상 적자생존적 권력정치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의 원칙이 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11) R. Keohane and J.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Linklater

12)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ch. 5

13)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 327

14)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1, 1990 과 S. Van Evera, "Primed for Peace: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3, 1990/1991



로 진단한다. 한스 모겐소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세력 균형원리를 귀납적으로 설명해냈고 대표적 신현실주의자인 월츠는 이에 연역적인 설명을 덧붙여 무정부적인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가는 자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국가는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에 민감하여 경제적 교류와 제도를 통한 표면상의 협조보다는 세력균형 속에서 더 큰 안정을 누리게 된다.

미국이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게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세력균형 원리에 따른 정책 결정의 결과이다. 미국 측으로서는 자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경쟁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세계 질서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다. 중국의 남동쪽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획득 하는 한편, 남서쪽 인도와 핵 협정을 맺은 일련의 행동은 이미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에 핵을 줌으로써 아시아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세력을 키워 나가려는 것은 세력균형이 원칙이 투사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패권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국의 제국 질서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sup>15)</sup>.

#### 4. 구성주의적 대안과 한계

지금까지 미국-인도 핵 협정이 주는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이론 간의 논쟁에서 일단 현실주의의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실주의 이론이 국제정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을 합리주의 계열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비판, 대안으로서의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중 구성주의 이론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으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이 합리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그들 이론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구성주의 이론은 이러한 비난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득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한 역사적, 비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신선한 노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현실주의가 만들어 놓은 판 자체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만 행위자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도가 왜 그토록 핵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미국이 왜 인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구성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국가는 권력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가정을 빌지 않더라도 인도가 행하는 권력추구행위를 구성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핵개발을 향한 인도의 발걸음은 단순히 인도 안보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인도가 갖는 제국적 정체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부터 인도는 세계적 위상을

---

15) A. Z. Hilali "India's Strategic Thinking and Its National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41, No. 5, (Sep. -Oct., 2001) pp. 747-749.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인도인들은 자기 인식의 근원을 인더스 문명 근원지와 힌두문명의 중심지에서 찾는다. 독립 이후 인도의 정치권은 줄곧 Hindutva라고 불리는 힌두 민족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해왔다. 이에 더해 인도인 들은 자국의 영토 크기, 인구수, 인도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인도가 남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더 나아가 지구적 파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워에 걸 맞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핵무기는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또한 인도 정치인들은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모두 핵보유국인 것처럼 인도가 그와 같이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핵보유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sup>16)</sup>

그렇다면 미국이 전략적 동맹자로 인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구성적 설명은 가능한가? 앞서의 논의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게 된 것은 대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패권국가와 대항패권국가 사이에는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 중 관계를 구성주의적으로 바라봐도 결국 적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먼저 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 선 나라이고 중국은 지구상에 몇 안남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주자이다. 또한 중국은 과거에 중화제국의 중심에 섰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한 채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자신을 대국으로 여기고 있고 현재의 미국은 제국과 다름없는 힘과 위상을 지닌 국가이다. 한반도문제, 대만문제 등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겹치며 대립되는 부분에서 제국적 정체성을 지닌 두 국가는 어느 한쪽의 영향력에 압도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두 국가는 지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경쟁자적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89년 천안문 사태를 시작으로 99년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 미군 정찰기 비상착륙 사건을 거쳐 최근 중-러, 중-러-인 합동군사훈련과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재배치 양상 등 우연한 사건의 의해서든, 전략적인 정책에 의해서든 서로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 미 관계를 보더라도 결국 현실주의자들의 가정으로 회귀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그 선택이 왜 꼭 인도였는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러시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는데 굳이 인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구성주의적 설명을 통해 더 구체화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제국적 질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표면에 내세우는 구호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미국의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냉전기간 동안 줄곧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두 나라지만 9.11 테러 이후 인도는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의 노력도 보였다.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는 언어적으로도 미국과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구성주의적 대안은 인도와 미국의 행동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인도가 왜 핵무기를 추구하게 되었는지, 미국이 왜 인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넘어서 현실주의 이론의 가정 자체가 틀리다는 주장은 내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현실주의적

16) A. Z. Hilali, "India's Strategic Thinking and Its National Security Policy"

정책을 구상해 나가는 전략가들에게 명분을 제시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흡사 미시 경제학에서 합리적 소비자에 대한 일련의 가정으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하는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에 대해 현시선호 이론가들이 반발을 시작했지만 결국 전자와 같은 결론을 얻어 오히려 전자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가져온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Ⅲ. 결론

미국과 인도의 핵 협정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이론 중 현실주의 이론이 가장 큰 적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핵 협정은 국제정치 상에서 NPT와 같은 제도적 노력이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과 여전히 핵무기와 같은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력균형 원리가 견제 하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의 우월한 입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두 이론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적 접근도 결국 현실주의 이론이 상정하는 국제정치의 판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였다.

그렇다면 현실주의 이론에 기반 하여 바라본 미래의 세계질서는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적 세계질서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다. 현재까지 양 국은 큰 마찰 없이 경제적 교류를 증가시키며 일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이득에 대한 고려는 결국 양국을 경쟁적 상화에 내 몰 것이다. 인도와의 핵 협정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이 취하는 전략적 태도는 중국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이미 정책적으로 표출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이 되어 자신에 대항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시아 내에서 세력균형 원리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패권화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중화문명의 옛 제국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이고 힌두문명의 인도가 남아시아의 패권이라면 미국 자신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 패권(supra hegemony)적 입장에서 제국적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세력균형의 객체로 전략하지 않도록 국력 신장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 참고문헌

J. Baylis and Steve Smith, eds.,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3rd ed., 을유 문화사, 2005.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권정수, “탈냉전기 핵 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 인도 · 파키스탄과 이라크 · 북한의 핵 개발과 통제 사례 비교” (서울 : 국방대학원, 2000)

Deepa M. Ollapally, "Mixed Motives in India's Search For Nuclear Status", *Asian Survey*, Vol. 41, No. 6(Nov., 2001)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 3(Winter, 1994/95)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1, 1990

S. Van Evera, "Primed for Peace: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3, 1990/1991

R. Keohane and J.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Linklater

A. Z. Hilali "India's Strategic Thinking and Its National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41, No. 5,(Sep. -Oct., 2001)

주간한국 2006년 3월 21일 2114호.

주간조선 2006년 3월 6일.

뉴스위크 한국판 2006. 4. 19.